

單発音読クリニック 上トレ3 操縦士の殺身成仁

1999년 9월 박정수 대위가 몰던 F-5 전투기가 안동 기지를 이륙한 직후 왼쪽 엔진이 꺼졌다. 관제탑은 활주로 회항을 지시했지만 전투기는 야산에 추락했다. 나중에 박 대위의 음성기록에서 경위가 밝혀졌다. “활주로를 돌아가다 인근 민가에 떨어질 수 있다. 일단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자.” 그러다 나머지 엔진이 마저 멈췄고 박 대위는 탈출하지 못했다.